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성당에서 본당 수녀로 일하고 있는 박춘도 베로니카 수녀입니다. 저는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중,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열심한 개신교 신자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제가 교회 다니기를 늘 바라던 친구의 기도 덕분인지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친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으나 저는 가톨릭신자가 되었고 그 후 본당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때 본당수녀님의 권유로 성소피정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연찮게 주보를 통해 씨튼 수녀회의 성소피정을 알게 되어 지금은 씨튼 수녀가 되었습니다.

1985년에 수녀회에 입회하였고 사도직은 성요셉학교 행정실과 완도본당, 강진본당, 그리고 사회복지를 공부하여 충주 성심 맹아원에서 일했으며, 관구 회계와 활천 본당, 제주중문 본당, 그리고 충주 연수동본당, 군산 소룡동 본당, 지금은 수도회에서 사도직을 철수한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을 거쳐 현재 광영동본당 수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본당수녀시절 사도직을 할 때는 전례며, 예비자 교리, 성경공부 등 다양한 일을 했으나 현재 본당의 전례, 예비자 교리, 성경공부 등은 평신도들이 잘 하고 있으며, 수도자들은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본당은 소공동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일주일에 한번씩 소공동체모임을 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복음 말씀을 듣고 생활 나눔을 합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생생한 신앙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하느님나라의 복음을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당은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삶의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더 씨튼께서 하셨던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본당신자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사회복지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거노인이나 환자방문이 언제나 가능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 갈수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당은 갓난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사회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다이나믹한 만남이 펼쳐지는 본당에서 창설자 마더 씨튼의 말씀처럼 교회의 딸로 살기 위해 늘 기쁘게 응답하며 살 수 있기에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Hello! I am Sister Park, Chun Do (Veronica). I'm ministering at Gwangyeong-dong Parish, Gwangyang-si in Jeollanam-do.

I have a close friend from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ho is Protestant and very religious. I am thankful for the prayer of my friend who in school days wanted me to go to church so I could meet God. However, despite my friend's prayer, I became a Catholic and enjoyed spending time with children in the church Sunday school. At that time a sister of the parish suggested that I should attend a vocation retreat. So I started to join retreats. One day I found the news of a vocation retreat offered by The Sisters of Charity in the weekly paper of the church. Eventually I became a sister of Charity.

I entered our congregation in 1985. I worked at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St. Joseph school. I also worked at Wando parish and Gangjin parish. I was missioned to Sacred Heart Rehabilitation Center in Chungju after studying social welfare. I also served as provincial treasurer. After that I ministered at several parishes such as Hwalcheon, Jungmun in Jeju, Yeonsu-dong in Chungju and Soryong-dong in Gunsan. And then I worked at Jecheon Social Welfare Center from which our congregation withdrew. Now I am serving as a sister at Gwangyeong-dong Parish.



In the early days when I ministered at a parish, sisters had many things to do including assisting at liturgical service, teaching catechism and Bible. However, nowadays the laity are doing well in those works so sisters are playing a role of supporting them. My parish focuses on Small Communities. Every week I visit families that have small community meetings to



listen to the Gospel and share their faith as they experience it in daily life. I am liv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joyfully by listening and sharing the faith of Christians living in the world.

those who can help with those in need as Mother Seton did. We can also lead parishioners with various talents to participate in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can visit the vulnerable such as the old living alone and the sick at any time.

I believe that the community living together with others can be realized in the parish. The parish can be called a microcosm of society, where we can meet people of all ages from infants to elderly. I am very pleased to respond to needs and live joyfully in a dynamic parish in order to live as a daughter of the church like Mother Seton said. Thanks be to God!

